

어머니역할(mothering)에 대한 심리인류학적 연구

정해영*

1. 배경: 어머니역할의 재조명

심리인류학 전문지 *Ethos*는 2010년의 스페셜 이슈 중 하나로 ‘일상적 실천으로서 어머니역할’(Mothering as Everyday Practice)을 다루면서 어머니역할이라는 주제를 새롭게 조명한 바 있다. 특히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벌어지는 어머니의 행위를 근접 관찰하여 분석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어머니역할을 중요한 연구 영역으로 주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이 연구들이 다루고 있는 어머니의 양육 행위 및 자녀와의 상호작용 관습으로서의 어머니역할은 사회화 혹은 인간발달과 관련한 심리인류학적 연구들이 전통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왔던 영역이라 할 수 있다.¹⁾ 또한 문화와 인성 학파에서부터 제기된 “인간은 어떻게 문화화된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과정

1) 어머니역할(mothering) 개념은 생물학적 어머니 혹은 어머니 본인의 믿음과 실천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해당 사회에서 어머니에게 기대되는 양육 행위라는 의

‘사람’으로 성장하는가”라는 심리인류학의 고전적인 질문을 여전히 공유하고 있다(Barlow and Chapin 2010). 그렇다면 이 연구들의 관점은 사회화와 관련한 전통적인 연구들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또한 어머니역할과 아동 사회화라는 주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들의 관점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론적 흐름에 위치하고 있는가?

본 글은 이처럼 최근 심리인류학 내에서 어머니역할(mothering)이 재조명되는 흐름에 주목하면서, 이 연구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론적, 방법론적 배경 하에서 어머니역할을 재조명하고 있으며 관점과 논의의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연구들이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여성주의, 문화적 모델과 언어사회화 연구, 정신역동과 간주관적 과정 등의 관점을 중심으로 그간 전개되어온 어머니역할과 관련한 연구들을 소개한다.²⁾ 이를 통하여 어머니역할과 관련한 최근의 연구들이 사회화 혹은 인간발달이라는 주제를 탐구하는 데 어떠한 함의를 지니며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또한 심리인류학적 연구에서 어머니역할이 다양한 논의 지점을 내포한 영역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미로 확장해서 본다면 유치원 교사, 아버지, 부모, 조부모의 특정 행동도 어머니역할로 볼 수 있다(예를 들어 Ben-Ari 1996). 이후 본 글에서 논의하듯이 최근의 연구들이 다루고 있는 다수의 양육자가 참여하는 다중의 어머니역할(multiple mothering)은 어머니역할 개념의 확장성을 보여준다. 또한 본 글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동성애 부부의 아동 사회화와 관련한 연구도 어머니역할이라는 주제의 다양한 맥락을 검토하는 데 참고할 만하다(대표적으로 Pelka 2010).

- 2) 본 글에서 검토하는 연구들은 시기적으로 주로 1990년대부터 2011년까지에 집중되어 있지만 의도적인 시기 구분은 아니다. 어머니역할과 관련하여 이상의 이론적 관점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시기와 맞물려 있다고 여겨지며, 오히려 본 글에서는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그 이전 시기까지 폭넓게 검토하고자 노력하였다.

2. 어머니역할에 대한 고전적인 연구

사회화와 관련하여 어머니역할에 대한 관심은 문화와 인성 학파에 서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아동기의 경험이 성장 후의 인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는 문화와 인성 학파가 비교문화적 관점으로 아동기를 탐구하게 된 주요한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다시 주요한 양육자로서 어머니의 양육 관습이 문화마다 어떻게 상이한가라는 의문으로 이어졌다. 아동기를 본격적으로 그려낸 민족지이자 미드(Margaret Mead)의 두 번째 현지조사 결과인 『뉴기니에서의 성장』(*Growing Up in New Guinea*, 1930)은 이러한 초기의 관심사를 보여준다. 미드는 본 저작에서 사모아에서의 청소년의 인성 발달 연구 이후 인성 연구에서 아동기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밝히면서, 미국 사회와는 다른 뉴기니 마누스(Manus) 아동의 일상적 세계와 부모와의 상호작용 및 어머니의 양육 행위를 소개하였다.³⁾ 이후 비서구 사회의 아동양육 관습에 본격적인 관심이 모아졌으며, 양육 관습의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주제가 인간발달 연구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LeVine 1994: 7).

국민성 연구들도 어머니의 양육 관습을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다루었으며(대표적으로 Bateson and Mead 1942; Benedict 2008[1946]),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양육 관습의 문화 간 다양성을 제시하고 설명

3) 미드의 또 다른 저서인 『세 부족 사회에서의 성과 기질』(*Sex and Temperament in Three Primitive Societies*, 1935) 또한 어머니역할과 관련하여 문화와 인성 학파의 관심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저작이다. 이 저작에서 미드는 남성과 여성에게 부여된 사회적인 인성, 즉 성별에 따른 기질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세 부족 사회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논의하면서, 자녀를 대하는 태도와 부모의 역할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 및 유사점을 논하고 있다. 또한 인성 발달의 과정으로서 초기 사회화와 아동의 경험이라는 주제에서는 어머니역할을 본격적으로 묘사한다. 무엇보다 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는 아동의 신체적인 경험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이 저서 또한 프로이트 이론의 영향 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려는 시도들이 등장하였다(대표적으로 Whiting and Whiting 1960, 1966). 특히 문화와 인성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 관습을 개인 수준의 인성과 세대 간에 전승되는 문화적 수준의 인성을 중개하는 과정이 자 요인으로 간주하면서, 보다 광범위한 비교문화적 접근을 통하여 공격성 통제 방식과 정도 같은 특성의 양육 패턴이 문화마다 어떻게 상이하고, 그 패턴이 질병에 대한 반응 같은 특성의 문화적 측면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는지를 검토하기도 하였다(Whiting and Child 1953). 또한 생태적 환경, 주거 형태, 가족 구조, 친족 체계, 경제적 활동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어머니의 상이한 양육 방식이 아동의 인성 발달 및 성인의 인성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을 발전시키기도 하였다(Mintum et al. 1964; Whiting and Whiting 1975).

이상의 연구들을 포함하여 어머니역할 및 사회화와 관련한 초기의 연구들에서 주목할 점은 이 연구들이 직간접적으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이론의 영향 하에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프로이트는 인류학 외부에서 문화와 인성 학파의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초기 아동기의 성적 발달 단계에 관한 이론과 아동기의 경험이 지속성을 갖고 성인의 인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은 심리인류학적 연구들이 아동기와 양육 관습에 주목하게 된 주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즉, 어머니의 양육 행위에 따른 아동기의 경험이 성장 후의 인성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전제는 일정 부분 정신분석학 이론에 기인한 것이었다(LeVine 2007: 5-7; Lindholm 2001: 122-138, 또한 Csordas 1994; Piker 1994). 전통적인 정신분석학 이론은 아동 발달이 성욕 패턴에 따라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로 구분되며, 이 단계에 따른 신체적 경험이 자아 혹은 인성에 영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하였다(Ingham 1996: 56-57). 따라서 초기 연구들의 어머니역할에 대한 논의는 주로 배변 훈련 방식, 젖먹이는 방법, 젖 떼는 시기와 엄격한 정도, 유아와의 동침 여부, 유아 성욕 통제 방법, 이동 시 아동과의 밀착도,

유아를 강보에 싸는 방법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즉, 이러한 요인들의 실천 방식이 문화마다 어떻게 상이한지, 또한 실제로 문화마다 상이한 인성의 결과로 나타나는지, 그 차이가 문화적 믿음의 결과인지 혹은 원인인지, 생태적·사회문화적 환경은 이 요인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논의가 이어졌다(Mead 2002[1935]; Bateson and Mead 1942; Benedict 1949; Whiting and Child 1953; Whiting et al. 1958; Whiting and Whiting 1966, 1975). 무엇보다 어머니를 주체로서보다 아동의 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이자 단순한 문화의 전달자로서 묘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사회화의 주체로서 어머니의 경험과 사회화의 실천 과정으로서 어머니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매일의 일상적 맥락에서 벌어지는 어머니와 자녀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사회화의 과정적 측면을 그려내는 한편, 아동뿐 아니라 어머니의 간주관적인 경험과 정신역동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 즉, ‘인간은 어떻게 문화화된 사람으로 성장하는가’라는 고전적인 질문을 계승하면서도 그 대답을 찾기 위한 시도를 ‘인간은 관계적, 일상적 맥락에서 어떠한 감정적, 인지적 경험을 하면서 자아를 형성해나가는가’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통하여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먼저, 아동기의 경험과 성인의 인성 간의 연속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온 발달심리학 및 정신분석학의 새로운 이론적 관점에 기인한다. 특히 최근에는 젖떼기 시기나 배변 훈련 같은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경험과 도덕적 가치의 직접적인 전달보다, 어머니를 포함하여 아동이 맺는 사회적 관계의 내용, 그 관계 속에서 아동의 경험, 부모의 인성적 특질, 가족의 사회적 조건 등이 문화적 지식의 습득과 자아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되고 있다(Ingham 1996: 83-87). 그러나 동시에 발달심리학과 정신분석학 이론이 형성되고 담론으로 전파되는 과정에 작용하는 서구 편향성은 중요한 비판 지점이며, 이러한 비판적 검토는 어머니역할과

관련한 최근의 심리인류학적 연구들의 주요한 성과 중 하나이다.

보다 직접적인 배경은 심리인류학 내 방법론적, 이론적 발전과 맞물려 있다. 방법론과 관련하여서는 주체들의 행위와 심리적 과정을 개인의 경험에 보다 가깝게 다가서서 그 과정에 내포되어 있는 감정과 의도, 동기를 기술하려는 노력으로 요약되는 사람중심적(person-centered) 관점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Hollan 2001: 48). 따라서 어머니역할과 관련하여 사람중심적 관점을 채택하고 있는 연구들은 또 다른 사회화의 주체인 아동뿐 아니라 어머니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화 과정의 역동성을 밀도 있게 담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개인의 심리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이 사회화 과정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표출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어머니역할을 보다 일상적인 맥락에서 묘사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이론적으로는 심리인류학 내에서 여성주의 시각과 여성주의 대상관계 정신분석학 관점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또한 인지적, 사회언어학적 접근의 발전 또한 어머니역할을 재조명하게 된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3. 심리학 이론에 대한 비판과 여성주의 관점의 수용

사회화 과정과 관련하여 ‘부모’가 아닌 ‘어머니’에 주목하면서 어머니역할을 본격적으로 탐구하려는 시도 중 일부는 여성주의 심리인류학자와 여성주의 정신분석학자 사이에서 등장하였다. 어머니역할이 역사적,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다는 관점을 공유하는 이들은 사례를 통하여 어머니역할의 서구 모델이 문화특수적임을 지적하는 동시에, 기존 심리학 이론의 서구 편향성과 전통적인 정신분석학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논의를 발전시켜왔다(Barlow 2004; Barlow and Chapin 2010). 그러나 사실상 서구 심리학 이론에 대한 비판은 인간발달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심리인류학적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관점 중 하나라는 점에서 심리인류학의 주요한 관심사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심리학자들은 주로 산업화된 서구 사회의 지극히 한정된 집단을 대상으로 인간발달에 관한 보편적인 이론을 발전시켜왔기 때문이다(Harkness 1992: 102). 또한 심리학의 이론적 관점에서 출발한 어머니다움에 관한 특정 이데올로기는 특정 양육 모델을 이상화하면서 여성의 어머니로서의 경험과 정체성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다.

1) 여성주의 심리인류학

1970년대 이후 어머니역할과 관련하여 비중 있게 거론되어온 발달 심리학 이론 중 하나는 보울비(Bowlby)와 에인스워드(Ainsworth) 등이 프로이트의 관점을 토대로 발전시킨 애착이론(attachment theory)이다. 특히 보울비는 어머니와 유아의 애착이 유아의 생존을 위해 진화되어온 것이며, 양육 관습 또한 이러한 보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발전되어 왔다고 주장하였다(Ingham 1996: 58-60). 이후 애착이론의 관점은 감정적 유대와 애착관계를 중시하는 서구 양육 이데올로기의 토대가 되었으며, 따라서 서구에서는 감정적인 유대관계 형성을 위한 어머니의 노력을 생물학적인 요인으로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쉐퍼-휴즈(Scheper-Hughes 1985, 1992)는 병약한 유아를 죽도록 방치하는 브라질 빈민가 어머니들의 사례를 통하여, 자녀와의 애착관계와 모성애를 어머니의 자연적이고 생물학적 특성으로만 간주해 왔던 서구의 가정들이 문화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기존의 모성애와 유대관계(bonding) 모델은 아동에 대한 관념 및 아동에게 요구되는 가치들이 문화적으로 다양하며 양육과 관련한 어머니의 믿음에 경제적, 사회문화적 요소가 개입된다는 사실은 물론, 유아의 생존

및 재생산과 관련한 의미들이 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결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관한 믿음과 자녀에 대한 감정적 태도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탐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같은 어머니역할의 서구 담론에 대한 비판은 심리인류학 내에서 여성주의 시각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등장하면서 한층 더 가시화되었다.

세이머(Seymour 2004a)는 70년대 이후 인류학 내에 여성주의 관점이 큰 영향력을 발휘해왔지만 심리인류학과 여성주의 인류학의 교류는 미비하였다고 지적한다. 특히 80~90년대에 여성과 젠더의 문제를 다루어온 심리인류학자들도 여성주의 시각을 크게 수용하지 않았으며, 심리인류학의 주요한 이론서들도 여성주의 시각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성주의 인류학자들도 정체성, 사람됨, 자아, 주체성 등의 심리인류학적 개념으로 젠더 관념이 어떻게 재생산되는지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심리인류학과 교류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고 언급한다. 따라서 ‘여성주의 심리인류학’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 새로운 시각이 다룰 수 있는 주제 중 하나로 ‘다수의 양육자’ 문제를 제시한다(Seymour 2004b). 인도 사회의 경우, 근대화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도 전통적인 가족제도에서처럼 어머니뿐 아니라 다수의 성인이 양육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이러한 사례는 어머니역할에 대한 서구 모델과는 상이하지만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서구에서 당연시 되어온 이상적인 어머니 역할, 즉 ‘좋은 엄마’ 개념은 어머니와 자녀 양자 간의 밀착적인 관계를 전제로 한다.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일대일의 집중도 높은 애착관계 형성과 어머니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며 심지어 전통적이고 자연적이라고 간주해온 것이다.⁴⁾ 그러나 이러한 관념은

4) 물론 유아에 대한 감정적 유대와 밀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태도가 반드시 서구적인 것이라고 간주할 근거는 미약해 보인다. 또한 어머니의 유아에 대한 태도를 서구적

문화보편적이기 보다 서구의 사회구조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탄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핵가족을 자연적인 가족 단위로 상정하는 근대 서구의 가족관, 가사노동의 성별에 따른 분업, 개인인 주요한 양육자가 아동을 또 다른 개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인주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화 과정에 대한 논의는 두 개인의 양자간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애착관계 이론을 비롯한 심리학의 인간발달 이론은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 하에서 탄생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코우솔트(Kousholt 2011)는 덴마크 중산층 가정의 사례를 중심으로 세이머의 논의를 발전시키면서 어머니와 아동의 일대일 관계에 치우친 시각이 아동 발달의 다양한 맥락을 간과하게 한다고 지적한다. 기존에 발달심리학에서는 어머니와 아동의 관계를 아동의 삶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발달 맥락으로 간주해왔으며, 가족의 개념 또한 이 관계를 중심으로 협소하게 다루어져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정은 물론 유치원, 아동의 또래 집단 등의 여러 사회적 맥락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아동의 발달 환경과 삶의 조건을 구성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부모역할(parenting)은 상호작용하는 이 맥락들, 즉 아동이 참여하는 다양한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언급한다.

어머니 중심의 사회화 연구에 관한 또 다른 비판적 주제는 세대 간의 양육 관습 차이와 조부모의 양육 참여이다. 조 등(Cho et al. 2005)은 미국과 타이완의 비교 사례를 제시하면서 그간 양육 방식에 관한 믿음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문화 간 다양성은 고려되어 왔지만 문화 내 다양성, 특히 세대 간의 다양성은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⁵⁾ 세대

인 것과 비서구적인 것으로 단순히 구분하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가 지닌 의의는 감정적 유대와 애착 관계를 중시하는 태도가 문화보편적인 것이 아님을 지적했다는 데에 있다.

5) 양육 관습의 계층 간 차이 또한 문화 내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주제이다. 예를

에 따라 상이한 육아정보가 양육관의 세대 차이를 만들 뿐 아니라, 확대 가족 제도가 일반적인 사회에서나 많은 아시아 문화에서는 조부모가 아동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머니를 유일한 양육자로 간주하는 시각은 부모역할의 다양한 맥락을 간과하게 한다는 것이다. 유사한 관점에서 상이한 정치경제적 환경을 경험한 두 세대 어머니의 갈등을 보여주는 주(Zhu 2010)의 중국 사례 또한 주목할 만하다. 주에 따르면, 탈사회주의라는 정치적 맥락 하에서 중국에서는 근대화라는 과제를 목표로 국가 주도의 과학적인 양육이 제도화되는 한편, 한 자녀 정책으로 어머니역할 수행에서 오히려 부모 의존도가 강화되는 현상이 등장하였다. 특히 한 자녀 정책 하에서 자라난 현세대의 어머니와 구세대의 어머니가 동시에 출산 준비에 참여하면서, ‘좋은 엄마’와 ‘영양’에 관한 상이한 관념들이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사례에서는 양육 과정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이러한 두 세대의 개입은 사회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세대 간의 상이한 문화가 일상적으로 경험되는 상황에서 사회화 과정은 보다 복잡한 지평도를 그려낼 가능성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두 세대 부모의 믿음과 관련한 연구는 문화적 전승과 변화의 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Harkness and Super 1996: 5).

한편, 발로우(Barlow 2004) 또한 어머니 역할을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 국한하면서 보편적이고 자연적인 행위로 간주하는 서구 심리학과 서구 대중 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문화적 관점은 물론 심리학적 관점이 결합된 보다 넓은 시각으로 어머니역할을 탐구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까지 심리학자들은 어머니역할의 문화적 다양성을 편차나 병리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고, 인류학자들은 어머니역할이 사회화에 영향

들어, 쿠서로(Kusserow 2004)는 미국에서 노동자층, 중류층, 중상층의 부모들이 양육 관습 및 아동 자아 개념과 관련하여 미국 사회에 만연한 개인주의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상이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는지를 보여준다.

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그 역동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히 인류학자에게는 심리학적 관점의 수용이 어머니와 아동의 삶은 물론 문화적 맥락 하에서 자아, 정체성, 젠더의 발달 과정을 보다 잘 이해하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한다. 즉,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어머니역할과 관련한 사회적 기대와 어머니 및 아동의 심리적 역동성을 탐구하는 데 심리인류학이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리학적 관점 중에서도 특히 발로우가 주목하는 것은 초도로(Nancy J. Chodorow) 등의 여성주의 대상관계 정신분석학자들의 연구 성과이다.

2) 여성주의 대상관계 정신분석학

앞서 살펴보았듯이 양육 관습 및 인성 혹은 자아 발달과 관련한 논의들은 전통적으로 정신분석학적 관점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발전해왔다. 또한 프로이트 이론은 개인과 문화의 관계, 그리고 어머니역할과 관련하여 많은 함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간과하였다는 사실은 물론, 어머니를 아동의 욕구 대상이나 문화적 가치의 전달자로만 묘사해왔다는 점에서 여성주의 학자들에게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대상관계 이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프로이트 이론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자아를 본질적으로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것으로 개념화하면서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어머니역할이 아동의 자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 보다 주목하였다(Barlow 2004: 520-522). 예를 들어, 위니콧(Winnicott 1997[1971])은 중간대상과 동일시 개념을 중심으로 아동이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애착과 분리 혹은 독립이라는 변화하는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한편, 이를 삶의 문화경험 영역으로 확장하여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어머니는 아동의 판타지적 대상이자 정신역동과 관련한 상징적 존재,

혹은 아동의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는 존재로 묘사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충분히 좋은 엄마는 유아의 필요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주고…… 유아를 성공적으로 돌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헌신하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언급함으로써(Winnicott 1997[1971]: 26-27), 다양한 문화적 맥락을 간과한 채 서구적 시각으로 어머니역할을 이상화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위니콧의 ‘좋은 엄마’(good-enough mother)와 ‘헌신적인 엄마’(devoted mother) 개념은 학문 영역뿐 아니라 대중으로 전파되었으며, 위니콧은 ‘좋은 엄마’ 담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의 주요한 계기를 제공한 학자로 일컬어진다(First 1994; Lindholm 2001: 143).

이에 반하여 여성주의 대상관계 정신분석학자들은 어머니를 주체로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어머니역할에 대한 또 다른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여성주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초도로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초도로는 기존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을 여성주의 시각에서 수정하면서, 어머니역할의 문화적 측면과 어머니의 경험을 본격적으로 다룬다. 특히 저서 『어머니역할의 재생산』(*The Reproduction of mothering*, 1999[1978])에서 여성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자신의 아이와의 관계에서 반복해서 경험한다고 언급하면서 어머니와 자녀의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강조함으로써 어머니역할과 관련한 논의를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인 공헌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족구조와 산업화라는 사회구조적 환경이 젠더 및 모성 개념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면서 어머니역할에 대한 서구의 가정이 여성의 주체성과 경험, 자아에 대한 논의를 간과하게 하였다고 비판하였다(Chodorow 1999; Chodorow and Contratto 1982).

마찬가지로 어머니역할 개념이 역사적,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탄생하였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것은 여성주의 심리학자들과 정신분석학자들이다(대표적으로 Bassin et al. 1994). 정신분석학적 훈련을 받

은 심리학자 서러(Thurer 1994)는 과학적인 엄마(scientific mom), 공감하는 엄마(empathetic mom)라는 서구의 어머니다움의 모델이 대중심리학(pop psychology)의 대중화로 20세기 들어 발명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어머니다움의 개념이 역사적으로 재발명되는 한편,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어왔음을 보여준다. 또한 아동의 삶의 질과 성장의 결과는 전적으로 양육에 의해 결정된다는 신화적 믿음은 자녀양육의 실천뿐 아니라 어머니들의 자아와 주체성 형성에도 영향을 미쳐왔다고 지적한다. 한편, 한국 사회와 관련한 연구들도 한국의 ‘좋은 엄마’ 개념과 모성애에 대한 강조가 역사적 배경 하에서 탄생한 것임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1920~30년대에 근대화 과정 속에서 한국의 여성들에게 근대가족을 구성하는 핵심 가치로 모성애가 반복적으로 요구되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당시의 모성에 담론은 전통적 여성관인 현모양처상과 서구의 ‘과학적인 엄마’ 및 ‘현명한 엄마’라는 이중적 특질을 띠고 있었으며, 이러한 담론은 근대가족을 중심으로 한 국민국가 형성이라는 제국주의 및 민족주의의 과제가 일정 부분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된 바 있다(전미경 2005; Hong 2008; Jung 2008).

앞서 논의한 초도로의 지적은 사회화와 관련하여 어머니역할을 기능주의적 관점이 아닌 정신역동적인 과정이자 주관적인 경험으로 검토하게 된 계기로 작용하였다. 어머니들이 자신만의 역사를 거치며 쌓아온 생애사적 경험, 심리적 기질, 내재화한 복합적인 문화적 믿음을 통하여 어머니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본격적으로 고려하고, 어머니의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화 과정을 탐구하려는 최근의 흐름은 여성주의 대상관계 정신분석학자들의 관점과 개인의 경험 묘사를 중시하는 사람중심 민족주의의 관점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어머니역할에 관한 가장 최근의 연구들은 이 두 가지 관점에 부분적으로 토대를 두고 있다(대표적으로 Chapin 2010; Sirota 2010).

4. 문화적 모델, 언어사회화 연구, 어머니의 정신역동

어머니와 자녀의 일상적 상호작용에 관심을 기울이는 최근의 연구들이 토대로 하는 또 다른 이론적 관점은, 스트라우스(Strauss)와 퀸(Quinn)을 대표로 하여 ‘문화적 모델’(cultural model) 개념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인지적 접근이다. 문화적으로 형성된 인지적 스키마(cognitive schema)라는 의미에서 문화적 스키마(cultural schema)⁶⁾라고도 불리는 문화적 모델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속한 대다수의 개인들이 유사한 경험을 함으로써 공유하게 된 인지체계이자 사고-감정(thought-feeling)의 패턴으로 정의된다. 즉, 개인은 경험을 통하여 구축한 문화적 모델을 준거로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해석하고 행위의 목표와 동기를 구성한다는 관점이다(D’Andrade 1992; Strauss 1992; Strauss and Quinn 1997: 48-84). 최근의 연구들이 문화적 모델 이론에 주목하는 이유는 외부 세계와의 다양한 상호작용 속에서 각자의 상이한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적 의미를 구성해가는 개인을 상정하면서 사회화 과정의 복잡성을 설명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은 문화적 의미가 어머니와 아동의 일상적 경험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유지되며, 또한 변형되는지를 탐구하는 데 기초적인 시각을 제공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Barlow and

6) 스키마(schema)는 80년대 이후 인지인류학뿐 아니라 인지심리학, 인지언어학 등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온 개념 중 하나이지만, 스트라우스와 퀸은 자신들의 이론이 인류학 내에서 기존에 논의되어온 인지적 접근과 달리 연결주의(connectionism) 모델에 따른 스키마 이론을 수용한 결과라고 밝힌다. 즉, 기존의 모델에서 스키마는 대응 관계로 연결된 인지적 요소들로 간주되었다면, 이 모델에서는 복잡하게 연결되어 총체를 이루는 인지적 요소들의 망으로 정의되며, 그 요소들은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포괄적인 개념으로 재현되고 보다 높은 위계의 주제화된 스키마들과 연결된다. 또한 맥락에 민감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단순히 반복적으로 적용되기 보다는 유연하게 적용된다고 말한다. 즉,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 각기 다른 주제의 의미를 담고 있는 여러 스키마들이 망처럼 연결되어 동시에 작동함에 따라 주어진 정보 이상의 의미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스키마의 상당수가 습득되고 공유된 것으로서의 문화적 스키마라고 언급한다(Strauss and Quinn 1997: 49).

Chapin 2010: 329). 한편, 언어사회화와 관련한 연구들은 문화적 의미가 습득되고 문화적 이해가 구성되는 장으로서 일상적 상호작용과 그 맥락에 주목하게 된 계기를 마련하였다.

1) 부모의 문화적 모델과 사회언어학적 접근

문화적으로 상이한 양육 목표 및 실천과 관련한 부모의 믿음은 심리인류학적 연구들이 전통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온 주제이다(대표적으로 Minturn et al. 1964; Whiting and Whiting 1975). 특히 르바인(LeVine 1974)은 ‘부모의 목표’(parental goals)라는 개념을 통하여 양육 목표와 그에 따른 양육 방식이 환경적 압력에 적응하기 위해 문화적으로 진화하여 전승되어온 것임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어머니의 늦은 젖떼기 관습은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영양실조를 막기 위해 발전되어온 것이며, 아동의 성장 정도에 따라 젖 떼는 시기를 조절하는 문화적 믿음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보편적인 부모의 목표를 아동의 생존과 건강, 생계 능력 발달, 문화적 규범 및 가치의 습득으로 규정하면서, 자녀양육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넓은 범위의 문화적 가치는 문화적으로 구성된 부모의 목표라는 맥락 하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부모의 믿음체계는 최근 문화적 모델 이론의 발전을 계기로 양육 행위를 구성하는 동기의 원천이라는 측면이 더욱 부각되면서 사회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탐구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하크네스와 수퍼(Harkness and Super 1996: 2)는 아동기의 특성, 아동의 기질 및 발달 구조, 아동 행위의 의미, 부모다움에 대한 부모의 이해가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며 특정의 문화적 집단 내에서 공유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부모의 문화적 모델을 ‘부모의 문화적 믿음체계’(parents’ cultural belief systems) 혹은 ‘부모의 민속이론’(parental

ethnotheory)으로 지칭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부모의 민속이론은 아동과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이와 연결된 보다 상위의 문화적 믿음 및 사람됨과 관련한 민속 심리를 포괄하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부모의 행위 및 사회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점이다. 무엇보다 양육 행위의 동기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부모의 믿음이 어떻게 행위와 연결되는가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D'Andrade 1992; Strauss 1992; Strauss and Quinn 1997: 3-11).

그럼에도 문화적 모델을 중심으로 한 인지적 접근은 근본적으로 문화의 소재지를 인간의 심리적 '내면'으로 상정하면서 부모의 믿음이 실천과 사회화의 결과로 이어진다고 전제한다는 점에서 비판 받아왔다(Harkness 1992; Chao 1995). 가장 큰 논쟁 지점은 이론과 방법론 간의 괴리이다. 문화적 모델을 탐구하는 연구들은 주요한 자료로 사람들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믿음에 관한 진술을 사용해왔다. 물론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 맥락이나 행위의 관찰이 배제되지는 않지만, 행동(action)보다는 주로 담론(discourse)에 초점이 맞추어져왔다고 할 수 있다(Hollan 2001: 52-53). 따라서 부모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양육 관습으로 실천되는가, 문화적 모델이 인간발달 과정에서 어떻게 정교화되는가, 그리고 부모가 전달하고자 하는 문화적 모델에 따른 가치와 의미를 아동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습득하는가라는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실제로 기존의 인지적 접근은 면접조사에 보다 비중을 두어서 체계적인 행위 관찰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Harkness

7) 예를 들어, 미국 중산층 부모들은 아동이 '단계'에 따라 발달한다고 이해하고, 변화하는 아동의 행위를 '독립심'과 연관 지어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여기서 '단계'와 '독립심'은 주제화된 부모의 문화적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독립심의 문화적 모델은 독립심이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며, 어떠한 상황에서 발현되어야 하고 습득될 수 있는지 등과 관련한 부모의 믿음들로 구성된다. 문화적 모델은 이처럼 주제화되는 속성이 있는데, '독립심'같은 주제화된 문화적 모델들은 하위 범주로서 '개인의 이데올로기'같은 보다 포괄적인 문화적 모델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Harkness et al. 1992).

1992: 116-117). 이와 관련하여 차오(Chao 1995)는 부모의 문화적 믿음이 사회화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표면적인 관찰만으로는 증명되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오히려 부모의 믿음과 가치는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매우 미묘한 방식으로 소통되며, 무수한 맥락 속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이고 점증적으로 전달되고 습득된다는 것이다. 펑(Fung 1999)의 연구에 등장하는 타이완 부모들의 민속 개념이자 수치심 교육의 실천 방법인 ‘기회 교육’(opportunity education)은 그 예시라 할 수 있다.

펑(Fung 1999)에 따르면, 타이완 부모들의 믿음에서 수치심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사회윤리적인 감정이며, 수치심에 대한 감각을 길러주는 것은 도덕교육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여기서 부모들은 이 수치심의 문화적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아동이 어떠한 상황에서 수치심을 느끼고 행동을 수정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교육한다. 이러한 기회 교육 과정에서 아이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경험을 통하여 수치심의 의미와 감각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펑의 연구는 수치심과 훈육에 관한 부모의 믿음체계를 제시하는 동시에, 다양한 일상적 맥락에서의 수치심 사례(shame event)를 분석함으로써 사회화의 과정적 측면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퍼와 하크네스(Super and Harkness 1986)가 실천으로서의 행위와 인지적 관점을 결합할 틀로 제안하는 ‘발달 적소’(developmental niche)의 일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발달 적소는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이 문화를 어떻게 습득하고, 습득한 문화적 모델을 어떻게 발전시키는지 그 과정을 일상적이고 미시적인 맥락을 중심으로 묘사하고 이해하려는 시도이자 이론적 개념을 의미한다. 펑의 연구에서처럼 부모와 아동이 상호작용하며 서사(narrative) 등의 언어 행위를 통하여 자아의 문화적 모델을 발달시키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회언어학적 접근을 통한 언어사회화 연구들 또한 이러한 발달 적소 개념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대표적으로 Miller

et al. 1996, 2001).

언어사회화 연구들은 언어의 습득과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언어의 사회화 및 언어를 통한 사회화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왔다.⁸⁾ 특히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은 인간발달에 핵심적인 측면이며 사회문화적 지식의 습득 과정과 긴밀히 연결된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문화의 습득에서 언어의 역할은 물론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 과정을 사회화 과정 탐구에 중요한 지점으로 주목해온 것이다. 또한 어머니를 비롯한 양육자의 말하기(speech)와 상호작용 관습을 문화적으로 구성된 행위로 간주하고, 그 행위가 특정한 사회적 집단이 공유하는 문화적 믿음과 가치를 반영할 뿐 아니라 표현한다고 상정하고 있다(Ochs and Schieffelin 1984; Ochs 1986). 무엇보다 사회화와 관련하여 이러한 언어사회화 연구들의 주요한 공헌은 평범한 일상적 활동과 상호작용 과정에 관심을 기울일 계기를 제공하고, 지속적이고 밀도 있는 관찰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이다(Garrett and Baquedano-López 2002: 343-345). 실제적으로 문화적 모델과 관련한 연구들이 주로 부모의 믿음에 관한 진술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왔다고 한다면, 언어사회화 연구들은 미시적인 상호작용 과정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언어사회화 연구의 관점에 영향을 받은 어머니역할과 관련한 연구들은 상호작용의 맥락에 대한 묘사에서 어머니뿐 아니라 아동의 관점 또한 고려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발달 적소의 아이디어를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8) 문화적 모델 이론과 언어사회화 연구가 사회화의 '과정'이라는 관심사를 공유하기는 하지만 상이한 연구 전통에서 출발한 것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언어사회화 연구는 기존의 발달심리 언어학적 연구와 인류학적 사회화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논의를 발전시켜왔다. 기존의 발달심리 언어학적 연구들은 문화적 맥락이 언어능력 발달 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언어 습득 과정에서의 문화 학습의 측면을 간과해왔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 사회화와 관련한 인류학의 전통적인 연구들은 아동의 주체성뿐 아니라 문화의 습득에서 언어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간과해왔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언어사회화 연구들은 언어의 사회화와 언어를 통한 사회화가 긴밀히 연결된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Kulick and Schieffelin 2004: 349-350).

실제로 최근의 연구들은 어머니는 물론 아동을 상호작용 속에서 상이한 전략을 시험하며 의미를 구축해나가는 행위자이자 주체로 간주한다.

한편, 문화적 모델 이론의 중요한 관점 중 하나는 문화적 지식의 습득과 내면화 과정을 습득자의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는 점이다 (Strauss and Quinn 1997: 210-251). 특히 과정과 의미로서의 문화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문화를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고정적인 관습 체계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입장과 구분 지으려고 시도한다. 즉, 문화적 지식의 일방향적 전승과 단순한 재생산을 전제해온 ‘팩스 모델’(fax model)을 거부하고(Strauss 1992), 사회화 과정에서 문화적 지식이 충돌하고 협상되며 변형되는 과정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⁹⁾ 예를 들어, 핑(Fong 2007)은 중국 다롄(大連)의 부모들이 유교사상과 사회주의, 자본주의가 혼합된 형태로 중국 사회를 인식하면서, 혼합된 문화적 모델에 따라 순종과 독립심, 학업에서의 우수함과 친사회성이라는 대립된 가치들을 일상적 맥락에서 동시에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10대의 자녀들은 이처럼 충돌하는 가치를 자신의 문화적 모델에 따라 해석하여 부모가 기대하는 것과 상이한 맥락에서 실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통의 불일치는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은 물론 한 자녀 정책 하에서 자라난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보고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부모의 문화적 모델이 보다 복잡한 개념적 의미와 대립되는 가치들을 포괄하며,¹⁰⁾ 따라서 부모의 믿음과 사회화 결과를 연결짓기 위해서는 문화적 모델의 소통과 습득의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9) 의미와 이해의 차원에서 문화에 접근하고자 하는 관점은 문화적 모델 이론과 사회언어학적 접근이 공유하는 부분이며, 80년대 이후 문화인류학 내의 주요한 이론적 흐름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Harkness 1992: 113-116).

10) 유사한 관점에서 와이즈너(Weisner 2009)는 양육 관습과 관련하여 충돌하는 가치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미국 중산층 부모들이 겪는 심리적 갈등을 보여준다. 또한 쉬조(Suizzo 2004)는 프랑스 어머니들의 문화적 모델에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라는 대립적인 가치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2) 상호작용 순간과 어머니의 정신역동

결국 언어사회화 연구와 문화적 모델을 중심으로 한 인지적 접근은 공통적으로 ‘문화화’를 ‘문화의 습득’이라는 측면에서 재규정하고, 그 습득의 과정을 묘사하려고 시도한다(Harkness 1992: 113-116). 감정(emotion) 사회화와 관련한 연구들 또한 습득 과정을 설명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같은 관심사를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러츠(Lutz 1983)는 르바인(LeVine 1974)이 제시한 ‘부모의 목표’ 개념을 토대로 이팔룩(Ifaluk) 사회에서 특정의 감정 및 그 의미체계를 사회화하는 부모의 행위를 자녀의 생존과 경제적 자립, 문화적 가치의 습득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한다. 더 나아가 아동이 이 감정의 의미체계를 어떻게 습득하는가라는 문제로 논의를 발전시키면서, 감정은 사회화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회화를 가능케 하는 매개체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즉, 문화적 가치의 습득이라는 부모의 목표는 아동이 그 가치에 따라 행동하도록 동기화될 때에 달성 가능하며, 가치 평가체계로 작용하는 감정의 습득은 문화적 가치를 습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어머니 등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아동이 경험하고 습득한 감정과 그 감정을 특정의 문화적 모델을 선택적으로 내재화하는 내적 동기의 원천으로 간주하는 시각은 최근의 문화적 모델 이론과 초도료를 중심으로 한 대상관계 정신분석학적 관점의 접점이기도 하다(Strauss and Quinn 1997: 102-108). 퀴(Quinn 2005)은 사회화와 관련한 기존의 인류학적 연구 성과들을 검토하면서 양육 과정에 내포된 특정의 믿음과 가치가 아동에게 동기화되어 자아 혹은 인성을 발달시키는 데 효과를 발휘하게 하는 보편적인 요인으로 네 가지 상위 전략을 지적한다. 즉, 일상적 자녀양육 과정에 스며들어 있는 특정의 문화적 모델은 반복 및 연속(constancy), 감정적 자극(emotional arousal), 거부하거나 받아들이는 식의 평가(evaluation), 그리고 앞의 세 가지 전략이 작용하는

토대가 되는 적절한 감정적 성향(emotional predisposition)의 발달 등의 네 가지 과정을 통하여 습득된다는 것이다.

브릭스(Briggs 1998)의 저서 『이누이트의 도덕성 놀이』(*Inuit Morality Play*)는 사람중심적 관점을 구체화하면서 감정적 성향의 발달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화 과정에 관한 연구들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브릭스는 이 민족지에서 처비 마타(Chubby Maata)라는 3살짜리 이누이트(Inuit) 아동의 관점을 중심으로 일상적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어머니와 아동의 감정적 경험과 이를 통한 아동의 발달 과정을 세밀하고 밀도 있게 묘사한다. 특히 일종의 장난 혹은 놀이로 간주되는 반복적인 상호작용 패턴 속에서 아동은 이누이트 문화에서 요구되는 감정적 성향을 발전시키는 한편, 특정의 욕구가 거부되거나 수용되는 과정에서 특정 행위나 관계의 좋고 나쁨 같은 도덕적 가치를 내재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은 어머니가 무의식적으로 전달하는 다층적이고 대립되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행위를 실험하고 조정하면서 창의적인 발달 과정을 거친다. 여기서 어머니는 아이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사회적 규칙을 교육하면서 스스로 그 규칙들을 재확인하거나 새로이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브릭스는 ‘감정이 수반되는’ 아동과 성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문화적 의미가 구성된다고 강조하면서, 일상적 상호작용의 세계를 근접 관찰하여 연속적이지도, 통합적이지도 않은 문화적 의미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가장 최근의 어머니역할을 주제로 한 연구들 또한 이처럼 상호작용에서의 미묘한 감정 교환을 중심으로 사회화 과정의 역동성과 복잡성을 보여주고 있다. 채핀(Chapin 2010)은 스리랑카(Sri Lanka)의 아이들이 초기 사회화 단계에서는 응석받이에 이기적이며, 제멋대로인 모습을 보이다가 사회화가 진행되면서 지나치게 수줍어하고, 이타적인 아이로 변

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특히 어머니들이 아동의 응석을 받아주고 욕구를 즉각적으로 채워준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흥미로운 지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관찰 결과 그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울기 때문에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여길 뿐, 실제로는 부정적인 감정적 반응을 보인다고 지적한다. 즉,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이 미묘한 감정 표현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아이는 거부되지 않기 위해 서서히 욕구 억제와 필요성을 습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어머니들의 이러한 반응은 어머니 자신의 성장 경험, 문화적으로 패턴화된 정신역동, 아동의 발달 구조 및 사람됨에 관한 문화적 모델 등이 다층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친사회성을 강조하는 에콰도르(Ecuador)의 어머니들은 채핀의 사례에서처럼 아동의 요구를 대부분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집안일 등에 몰두하며 다른 가족들에게 아동을 맡긴다는 측면에서 부모역할과 관련한 미국 사회의 이데올로기에서는 방임이라는 범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머니의 이러한 허용적인 행위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감정적인 애착을 분산시키면서 사회성을 기르도록 유도하고, 타인의 요구를 수용하는 이타적이고 친사회적인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어머니는 일상적 맥락에서 용인과 훈육을 미묘하게 조정하면서 아이가 또래 및 친족 등의 사회적인 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끼도록 감정적인 경험을 지속적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Rae-Espinoza 2010).

한편, 시로타(Sirota 2010)는 울펜스타인(Wolfenstein 1955)이 지적한 ‘재미의 도덕성’(fun morality) 개념이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되며, 전략적으로 활용되는지를 보여준다. 정신분석학자인 울펜스타인은 현대 미국 문화 전반에 만연한 재미에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20세기 초 아동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재미의 도덕성’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사회화와 관련하여 ‘재미의 도덕성’ 경향은 놀이를 중시하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서구의 ‘좋은 엄마’ 모델과 맞물리면

서 보다 많은 시간 투지와 노력이 요구되는 어머니역할의 모델을 만들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Hays 1996). 시로타는 녹화된 미국 중산층 어머니와 자녀간의 상호작용 및 놀이 장면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재미의 도덕성’이 창의적 놀이(imaginative play)의 방식으로 빈번히 실천되고 있다고 보고한다. 무엇보다 어머니는 이 놀이를 아이와의 사소한 갈등을 줄여서 친화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도구로 활용한다. 옷을 입지 않겠다고 반항하는 아이와 신데렐라 놀이를 하면서 옷을 입히는 식으로 실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창의적 놀이는 실용적인 의미 외에도 사람됨의 관념을 소통하는 장이 된다고 강조한다. 현재 미국 중산층의 가치를 반영한 도덕성과 사람됨의 문화적 모델이 놀이 과정 자체에 반영되어 있으며, 다양한 역할 놀이를 통하여 아동은 자율성과 자아표현 같은 가치를 반복적으로 학습한다는 것이다.

미국 중산층 어머니들이 훈육과 감정적 유대라는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며 겪을 수 있는 갈등을 창의적 놀이를 통하여 해결한다면, 발로우(Barlow 2010)의 연구에 등장하는 파푸아뉴기니의 어머니들은 분업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파푸아뉴기니의 뮤릭(Murik) 지역에서 아이의 훈육은 어머니 외의 주변 이웃과 친척들이 담당하며, 이 때문에 어머니는 아이와 큰 감정적 갈등 없이 유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발로우는 식량 부족으로 해당 사회에서 음식의 분배가 사회적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면서, 음식을 나눠먹는 순간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훈육 과정에서 아이는 관계성의 가치와 사람됨의 관념을 습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상적 상호작용의 순간에 주목하는 최근의 연구들은 ‘인간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문화적 지식을 습득하며 성장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머니와 자녀 간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찾고자 시도한다. 사회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문화

습득의 과정은 복잡성을 띠며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진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특히 그 맥락 속에서 실천되는 어머니역할을 근접 관찰하면서 어머니와 자녀의 경험을 그려내고 있다. 여기서 인지적 접근은 어머니와 아동의 일상적 상호작용에서 문화가 어떻게 습득되고, 변형되는지를 자아 발달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 즉, 최근의 연구들은 자아의 문화적 모델이 어떻게 습득되는가라는 보다 넓은 차원의 주제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신분석학적 관점을 토대로 아동은 물론 어머니의 정신역동적이고 간주관적인 경험을 보여주고자 시도한다. 어머니라는 주제와 또 다른 주체인 아동의 상호작용에는 미묘한 감정 교환과 감정적 딜레마가 존재하며, 따라서 자아 및 사람됨의 발달이 역동적인 과정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시적 접근은 보다 넓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묘사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보다 거시적인 맥락 또한 특정의 어머니역할이 수행되는 역사적, 문화적 환경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근대화와 자본주의 소비문화, 후기산업화라는 시대적 맥락 속에 어머니역할을 위치시킨 연구들을 검토한다.

5. 어머니역할과 자본주의 소비문화, 그리고 전지구화

지금까지 검토한 연구들은 어머니역할이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더 큰 맥락의 사회문화적 흐름 속에 위치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지만, 미시적 접근은 이 맥락에 대한 묘사를 간과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근대화와 자본주의, 전지구화 등의 보다 넓은 사회문화적 맥락은 어머니역할과 상호작용의 중요한 환경적 요인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 자본주의 소비문화와 후기산업화라는 맥락은 어머니역할의 또 다른 전경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테일러 등(Taylor et al. 2004)은 사

량(love)으로 대표되는 어머니다움과 얼핏 보기에 대립되는 범주로 보이는 돈(money)이라는 문제가 소비자본주의 문화라는 맥락 하에서 어떻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소비문화라는 거시적인 맥락은 가족의 일상적 경험이자 현실이며, 어머니뿐 아니라 아동의 삶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세이터(Seiter 1998)는 현대의 대중문화가 생산해낸 아이다움이라는 이미지가 잡지 광고, 텔레비전, 장난감 산업 등에서 재생산되면서 아동 소비주의를 만들어냈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그간 아동 소비주의를 아동과 광고 생산자와의 관계라는 맥락 하에서만 다룸으로써, 어머니들이 겪는 딜레마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아동의 소비 증가는 양육 과정의 또 다른 난점으로 자리 잡았으며, 어머니들이 습득한 전문적인 양육 정보와 상충되는 소비주의 경향이 딜레마를 경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헤이스(Hays 1996)는 어머니와 자녀간의 밀착적인 관계와 헌신적인 어머니역할을 중심으로 한 서구 근대의 ‘좋은 엄마’ 이데올로기에는 사회적, 도덕적 규범뿐 아니라 합리성을 표방하는 시장경제의 논리가 암묵적으로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이 모델에는 모든 문제가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 간주하는 근대적 자아관 또한 내포되어 있으며, 사랑과 헌신이라는 가족 가치와 육아 노동의 경제적 가치라는 근대적 이중성은 남성보다는 주로 여성에게 모순으로 경험된다고 강조한다(Hays 1996: 152-178). 더글라스와 마이클스(Douglas and Michaels 2004)는 서구에서 이상화된 어머니다움의 모델이 텔레비전이나 잡지, 신문, 광고 등의 매체를 통하여 어떻게 이미지화되어 재생산되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유명인사 엄마(celebrity mom)의 판타지에 가까운 어머니역할이 미디어를 통하여 상품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전지구화 현상의 특징 중 하나인 영토를 초월한 미디어의 영향력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측면은 서구의 ‘좋은 엄마’ 담론이 비단 서구 사회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Douglas and Michaels

2004: 110-139). 이상의 연구 결과들은 자본주의와 근대성이라는 주제가 현대의 어머니역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점임을 보여준다.

한편, ‘교육열’과 어머니역할 또한 근대화 및 전지구화 흐름과 가족 문화가 교차하는 중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박소진(2007; Park 2007)은 90년대 들어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적 교육 개혁 흐름과 함께 세계적 경쟁력과 창의성을 갖춘 새로운 시민상이 부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교육과 조기교육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어머니역할에서 자녀교육의 중요성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보고한다. 즉, 자녀의 소질과 재능 개발이 전적으로 어머니의 책임이 되고 교육 소비자 및 교육 관리자로서의 어머니역할이 강조되면서 ‘교육매니저 엄마’라는 새로운 모성 담론이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가정이 자기 규율과 소질 개발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주체 형성의 장으로 기능하게 된 것인데, 이에 대해 박소진은 신자유주의적 주체 형성뿐 아니라 교육 투자를 통한 계층 유지 및 이동이라는 과제가 자녀는 물론 어머니에게도 적용되고 있다고 말한다.

신자유주의적 교육 담론과 관련하여 한국 내에 등장한 또 다른 현상은 홈스쿨링이다. 정재훈(Jung 2008)은 신자유주의 전지구화 흐름 속에서 개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서구 개인주의 가치관이 강조되면서 집단주의적이고 획일적인 학교체계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어머니들이 등장하였다고 말한다. 이 어머니들은 스스로를 자기희생을 감수하는 교육매니저 엄마들과 구분하면서 새로이 교육자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한편, 홈스쿨링 과정에서 자녀와의 친밀감과 감정적 유대라는 심리적 보상을 얻는다. 특히 홈스쿨링의 선택 동기가 서구의 개인주의 가치관에 토대를 둔만큼, 아동의 개성과 자율성, 창의성이라는 가치를 실천하는 새로운 어머니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¹¹⁾ 따라서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서 홈스쿨링은 자녀 교육을 위한 대안적 선택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신자유주의 교육 담론 하에서

가족중심 가치를 되찾기 위한 문화적 저항인 동시에, 가정이 또 다른 의미에서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경쟁력을 갖춘 사회의 일원을 양성하는 상징적인 공간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한다.

앨리슨(Allison 1996: 81-122)의 도쿄 중산층의 사례는 교육열과 교육제도가 아동은 물론 어머니의 일상적 삶에 어떻게 침투하여 어머니역할을 형성하고 관리하는지를 보여준다. 일본의 ‘교육엄마’(Kyōiku mama)는 한국의 교육매니저 엄마에 상응하는 어머니역할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데, 앨리슨은 일본의 후기산업화 과정에서 교육제도가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재편되면서 교육엄마로서의 역할 수행이 유치원 시기로 확장되었으며, 어머니는 자녀의 학업성취를 위한 일상적, 경제적 지원은 물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역할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기존에 일본에서 가정은 아동의 응석을 받아주는 어머니로 인하여 향후 일터에서의 단체 생활에 필요한 사회성을 기르기에 부적합하다고 간주되면서 아동의 사회화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축소해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교와 가정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어머니역할은 학교생활의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수행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아동의 방과 후 놀이, 도시락, 방학 동안의 생활, 어머니의 헌신 정도까지 감독하는 유치원 제도는 오히려 어머니역할을 제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한국과 일본의 교육열과 관련한 연구 사례는 교육이라는 주제가 후기산업화 및 전지구화라는 시대적 맥락과 가정, 어머니역할, 아동의 삶이 상호작용하는 중요한 지점임을 보여준다.¹²⁾

-
- 11) 개인주의 가치의 실천과 관련하여 정혜영(2011)은 미취학 아동의 사회화 사례를 보여준다. 이 사례에서 한국 중산층 부모들은 서구의 대중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육아전문 정보를 토대로 아동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개인주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12) 이와 관련하여 핑(Fong 2004)의 중국 사례 또한 주목할 만하다. 현대화라는 국가적 과제 속에서 부모와 자녀 각각에게 기대되는 역할 및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맺음말

어머니역할과 관련한 최근의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압축할 수 있다. 먼저,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서구의 심리학 이론 및 그 이론들로 파생된 어머니역할의 서구 모델이 문화특수적임을 지적하는 논의들이 이어졌다. 특히 어머니와 아동간의 배타적이고 긴밀한 애착 관계를 강조하는 서구의 발달심리학 이론과 대중담론은 서구 특유의 역사적,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탄생한 것이며 다양한 아동의 발달 맥락을 간과하게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방향성의 연구들은 어머니역할이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조건 지워지고, 그 조건 하에서 어머니역할이 다양한 전략을 통하여 실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 논의들은 인간발달의 맥락에서 무엇이 보편적이며, 무엇이 특수한가라는 심리인류학의 고전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주요한 방향은 매일의 일상적인 맥락에서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의 순간을 근접 관찰함으로써, 문화적 지식과 가치들이 어떻게 전달되고 습득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 연구들은 사람중심적 관점에서 어머니와 아동이라는 두 주체의 일상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문화적 모델 개념을 중심으로 한 인지적 접근 및 여성주의 대상관계 정신분석학적 관점을 주요한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은 언어 습득 과정에서 문화적 의미가 어떻게 습득되고 형성되는지에 주목하는 언어사회화 연구들과도 관심사가 맞닿아 있다. 따라서 가장 최근의 연구들은 어머니와 아동간의 일상적 상호작용의 순간들을 포착하여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사회화 과정의 역동적인 측면과 그 과정 속에서의 어머니 및 아동의 경험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시적 접근은 자본주의 소비문화 및 후기산업화, 전지구화, 그리고 이와 맞물린 근대적

자아 형성이라는 과제 같은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 환경을 간과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역할을 보다 거시적인 맥락에 위치시킨 인류학적 연구뿐 아니라 인류학 외부의 연구들도 함께 검토하였다.

결국, 최근의 어머니역할에 대한 연구들은 ‘인간은 어떻게 문화적 인성을 발달시키는가 혹은 문화화된 ‘사람’으로 성장하는가’라는 문화와 인성 학파에서부터 제기된 심리인류학의 고전적인 질문들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그 과정을 어머니와 아동이라는 두 사회화 주체의 감정적, 인지적 경험을 중심으로 묘사하고 설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머니역할에 초점을 맞춘 최근의 연구들은 자아, 사람됨, 감정이라는 심리인류학의 주요한 주제들을 탐구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한국 사회와 관련한 심리인류학적 연구에는 시사하는 바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간 현대 한국 사회를 맥락으로 한 자아와 관련한 인류학적 탐구는 미비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향후 이와 관련한 연구에서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 어머니역할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논문접수일: 2011년 10월 15일, 논문심사일: 2011년 11월 29일, 게재확정일: 2011년 12월 28일

참고문헌

박소진

2007 “공간적 위계수사와 구별짓기: 강북 어머니들의 자녀교육 내러티브”, 『한국문화인류학』 40(1): 43-81.

전미경

2005 “1920-30년대 ‘모성담론’에 관한 연구: 『신여성』에 나타난 어머

니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7(2): 95-112.

정해영

2011 “개성 있지만 튀지 않는 아이로: 한국 중산층 부모들의 자아 및 감정 사회화 관습”, 『한국문화인류학』 44(1): 167-202.

Allison, Anne

1996 *Permitted and Prohibited Desires: Mothers, Comics, and Censorship in Japan*,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Barlow, Kathleen

2004 “Critiquing the “Good Enough” Mother: A Perspective Based on the Murik of Papua New Guinea,” *Ethos* 32(4): 514-537.

2010 “Sharing Food, Sharing Values: Mothering and Empathy in Murik Society,” *Ethos* 38(4): 339-353.

Barlow, Kathleen and Bambi L. Chapin

2010 “The Practice of Mothering: An Introduction,” *Ethos* 38(4): 324-338.

Bassin, Donna, Margaret Honey, Meryle Mahrer Kaplan (eds.)

1994 *Representations of Motherhoo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Bateson, Gregory and Margaret Mead

1942 *Balinese Character: A Photographic Analysis*, New York: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Ben-Ari, Eyal

1996 “From Mothering to Othering: Organization, Culture, and Nap Time in a Japanese Day-Care Center,” *Ethos* 24(1): 136-164.

Benedict, Ruth

1949 “Child Rearing in Certain European Countri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19(2): 342-350.

2008[1946]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Patterns of Japanese Culture*, 김윤식, 오인석 공역, 『국화와 칼: 일본 문화의 틀』, 서울: 을유문화사.

Briggs, Jean L.

1998 *Inuit Morality Play: The Emotional Education of a Three-Year-Old*,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Chao, Ruth K.

1995 "Chinese and European American Cultural Models of the Self Reflected in Mothers' Childrearing Beliefs," *Ethos* 23(3): 328-354.

Chapin, Bambi L.

2010 "We Have to Give: Sinhala Mothers' Responses to Children's Expression of Desire," *Ethos* 38(4): 354-368.

Cho, Grace E., Todd L. Sandel, Peggy J. Miller, and Su-hua Wang

2005 "What Do Grandmothers Think about Self-esteem? American and Taiwanese Folk Theories Revisited," *Social Development* 14(4): 701-721.

Chodorow, Nancy J.

1999[1978] *The Reproduction of Mothering: Psychoanalysis and the Sociology of Gende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Chodorow, Nancy and Susan Contratto

1982 "The Fantasy of the Perfect Mother," in Barry Thorne, ed., *Rethinking the Family: Some Feminist Questions*, NY: Longman. pp. 54-75.

Csordas, Thomas J.

1994 "Self and Person," in Philip Bock, ed., *Handbook of Psychological Anthropology*, CT: Greenwood. pp. 331-350.

D'Andrade, Roy

1992 "Schemas and Motivation," in Roy D'Andrade and Claudia Strauss, eds., *Human Motives and Cultural Mode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3-44.

Douglas, Susan, and Meredith Michaels

2004 *The Mommy Myth: the Idealization of Motherhood and How It*

has Undermined Woman, New York: Free Press.

First, Elsa

- 1994 “Mothering, Hate, and Winnicott,” in Donna Bassin, Margaret Honey, Meryle Mahrer Kaplan, eds., *Representations of Motherhoo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pp. 147-161.

Fong, Vanessa L.

- 2004 *Only Hope: Coming of Age under China's One-Child Policy*,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2007 “Parent-Child Communication Problems and the Perceived Inadequacies of Chinese Only Children,” *Ethos* 35(1): 85-127.

Fung, Heidi

- 1999 “Becoming a Moral Child: The Socialization of Shame among Young Chinese Children,” *Ethos* 27(2): 180-209.

Garrett, Paul B., and Patricia Baquedano-López

- 2002 “Language Socialization: Reproduction and Continuity, Transformation and Change,” *Th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1: 339-361.

Harkness, Sara

- 1992 “Human Development in Psychological Anthropology,” in Theodore Schwartz, Geoffrey White, and Catherine Lutz, eds., *New Directions in Psychological Anthropology*,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02-122.

Harkness, Sara, Charles M. Super, and Constance H. Keefer

- 1992 “Learning to Be an American Parent: How Cultural Models Gain Directive Force,” in Roy D’Andrade and Claudia Strauss, eds., *Human Motives and Cultural Mode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58-199.

Harkness, Sara and Charles M. Super

- 1996 “Introduction,” in Sara Harkness and Charles M. Super, eds., *Parents' cultural belief systems: their origins, expressions, and consequences*, NY: The Guilford Press. pp. 1-23.

Hays, Sharon

1996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Motherhoo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Hollan, Douglas

2001 “Developments in Person-Centered Ethnography,” in Carmella C. Moore and Holly F. Mathews, eds., *The Psychology of Cultural Exper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48-67.

Hong, Yang-hee

2008 “Debates about ‘A Good Wife and Wise Mother’ and Tradition in Colonial Korea,”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11(4): 41-60.

Ingham, John M.

1996 *Psychological Anthropology Reconsidere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Jung, Jae Hun

2008 *Contested Motherhood: Self and Modernity in South Korean Homeschooling*, Ph. D. Dissertation, Department of Anthropology, Washington State University.

Kulick, Don and Bambi B. Schieffelin

2004 “Language Socialization,” in Alessandro Duranti, ed., *A Companion to Linguistic anthropology*, Malden: Blackwell Publishing. pp. 349-368.

Kusserow, Adrie

2004 *American Individualisms: Child Rearing and Social Class in Three Neighborhood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LeVine, Robert A.

1974 “Parental Goals: A Cross-Cultural View,” *Teachers College Record* 76(2): 226-239.

1994 “The Comparative Study of Child Care,” in *Child Care and*

- Culture: Lessons from Afric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7-21.
- 2007 “Ethnographic Studies of Childhood: A Historical Overview,” *American Anthropologist* 109(2): 247-260.
- Lindholm, Charles
- 2001 *Culture and Personality: The History, Theory, and Practice of Psychological Anthropology*, New York: McGraw Hill.
- Lutz, Catherine
- 1983 “Parental Goals, Ethnopsychology, and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Meaning,” *Ethos* 11(4): 246-262.
- Mead, Margaret
- 1930 *Growing Up in New Guinea*. New York: William Morrow.
- 2002[1935] *Sex and Temperament in Three Primitive Societies*, 조혜정 역, 『세 부족 사회에서의 성과 기질』,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Minturn, L., W. W. Lambert
- 1964 *Mothers of Six Cultures: Antecedents of Child Rearing*, New York: Wiley.
- Miller, Peggy J., Heidi Fung, and Judith Mintz
- 1996 “Self-Construction through Narrative Practices: A Chinese and American Comparison of Early Socialization,” *Ethos* 24(2): 237-280.
- Miller, Peggy J., Todd L. Sandel, Chung-hui Liang, and Heidi Fung
- 2001 “Narrating Transgressions in Longwood: The Discourses, Meanings, and Paradoxes of an American Socializing Practice,” *Ethos* 29(2): 159-186.
- Ochs, Elinor
- 1986 “Introduction,” in Bambi B. Schieffelin and Elinor Ochs, eds., *Language Socialization across Cultur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13

Ochs, Elinor and Bambi B. Schieffelin

- 1984 “Language Acquisition and Socialization: Three Developmental Stories and Their Implications,” in Richard A. Shweder and Robert A. LeVine, eds., *Culture Theory: Essays on Mind, Self, and Emo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76-320.

Park, So Jin

- 2007 “Educational Manager Mothers: South Korea’s Neoliberal Transformation,” *Korea Journal* 47(3): 186-213.

Pelka, Suzanne

- 2010 “Observing Multiple Mothering: A Case Study of Childrearing in a U.S. Lesbian-Led Family,” *Ethos* 38(4): 422-440.

Piker, Steven

- 1994 “Classical Culture and Personality,” in Philip Bock, ed., *Handbook of Psychological Anthropology*, CT: Greenwood. pp. 1-17.

Quinn, Naomi

- 2005 “Universals of Child Rearing,” *Anthropological Theory* 5(4): 477-516.

Scheper-Hughes, Nancy

- 1985 “Culture, Scarcity, and Maternal Thinking: Maternal Detachment and Infant Survival in a Brazilian Shantytown,” *Ethos* 13(4): 297-317.
- 1992 *Death without Weeping: the Violence of Everyday Life in Brazil*,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eiter, Ellen

- 1998 “Children’s Desires/Mothers Dilemmas: The Social Contexts of Consumption,” in Henry Jenkins, ed., *Children’s Culture*, New York: University Press. pp. 297-317.

- Seymour, Susan
- 2004a "Introduction: Contributions to a Feminist Psychological Anthropology," *Ethos Special Issue* 32(4): 416-431.
- 2004b "Multiple Caretaking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 An Area in Critical Need of a Feminist Psychological Anthropology," *Ethos* 32(4): 538-556.
- Sirota, Karen Gainer
- 2010 "Fun Morality Reconsidered: Mothering and the Relational Contours of Maternal-Child Play in U. S. Working Family Life," *Ethos* 38(4): 388-405.
- Strauss, Claudia
- 1992 "Models and Motives," in Roy D'Andrade and Claudia Strauss, eds., *Human Motives and Cultural Mode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20.
- Strauss, Claudia, and Naomi Quinn
- 1997 *A Cognitive Theory of Cultural Mean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uizzo, Marie-Anne
- 2004 "Mother-Child Relationships in France: Balancing Autonomy and Affiliation in Everyday Interactions," *Ethos* 32(3): 293-323.
- Super, Charles M. and Sara Harkness
- 1986 "The Developmental Niche: A Conceptualization at the Interface of Child and Cul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9: 545-569.
- Taylor, Janelle S., Linda L. Layne, and Danielle F. Wozniak (eds.)
- 2004 *Consuming Motherhood*,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 Thurer, Shari L.
- 1994 *The Myths of Motherhood: How Culture Reinvents the Good Mother*,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Weisner, Thomas S.

- 2009 “Culture, Development, and Diversity: Expectable Pluralism, Conflict, and Similarity,” *Ethos* 37(2): 181-196.
- Whiting, Beatrice B. and John W. M. Whiting
- 1960 “Contributions of Anthropology to the Methods of Studying Child Rearing,” in P. H. Mussen, ed.,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in child development*, John Wiley and Sons. pp. 918-944.
- 1966 “The Learning of Values,” in E. Z. Vogt and E. H. Albert, eds., *People of Rimrock: A Study in Five Cultur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pp. 83-125.
- 1975 *Children of Six Cultures: A Psycho-Cultural Analysi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Whiting, John W. M., and Irvin L. Child
- 1953 *Child Training and Personality: A Cross-Cultural Study*,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Whiting, John W. M., R. Kluckhohn, and A. Anthony
- 1958 “The Function of Male Initiation Ceremonies at Puberty,” in E. Maccoby, T. Newcomb, and E. Hartley, eds., *Readings in Social Psychological*, New York: Holt. pp. 359-370.
- Winnicott, Donald
- 1997[1971] *Playing and Reality*, 이재훈 역, 『놀이와 현실』,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Wolfenstein, Martha
- 1955 “Fun Morality: An Analysis of Recent American Child-Training Literature,” in Margaret Mead and Martha Wolfenstein, eds., *Childhood in Contemporary Culture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168-178.
- Zhu, Jianfeng
- 2010 “Mothering Expectant Mothers: Consumption, Production, and Two Motherhoods in Contemporary China,” *Ethos* 38(4): 406-421.

〈Key concepts〉: mothering, child-rearing practices, socialization, human development, psychological anthropology

Studies on Mothering in Psychological Anthropology

Jung, Hae-Young*

Maternal behaviors, and parental roles and belief systems have long been important topics in psychological anthropology, particularly in the studies on human development, child socialization, and enculturation. While recent studies in the field continue to elaborate on the classical question of how children become socialized as persons, they began to emphasize mothers' agencies and subjective experiences, closely examining mothering as everyday practices of socialization processes.

This review attempts to locate the renewed interests in mothering in the long tradition of anthropological studies of socialization, child-rearing, and personhood, by examining recent ethnographic studies and their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positions. For this, I pay attention to feminist perspectives, person-centered approach, cultural model theory, and language socialization.

Current inquiries on mothering nicely capture the meanings of

* Master's student, Department of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everyday interactions between mother and child, and present the dynamics of maternal behaviors. While offering close descriptions and rich interpretations of mother-child interactions, however, many of them run the risk of overlooking broader sociocultural contexts. Some studies that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ing and post-industrial capitalism are promising in this regard. This review demonstrates that the subject of mothering not only provides an important foundation for examining socialization process, but also has abundant implications about the central issues of self and person in psychological anthropology.

